1강 주제1 | 전통과 사유

| 강좌명 | '이방인' 알베르 카뮈와 부조리 철학의 현대성

2차 세계대전 직후 모든 젊은이들이 어둠 속을 더듬거리며 스승을 찾고 있을 때, 하필이면 그때 프랑스 지성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것이 지중해인 카뮈의 행복이자 불행이었다. 카뮈의 죄는 진정 옳은 말을 했지만 그 시기가 너무 이른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더욱이 1940년~1950년대는 아롱과 함께 옳은 것보다는 사르트르와 함께 틀리는 것이 낫다고들 하던 시대가 아닌가. 긍정과 부정, 고통과 기쁨, 광기와 이성, 상대와 절대,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극단을 분명하게 선택하지 않는 카뮈가 얼마나 답답해 보였을까?

이 강의의 목적은 도대체 카뮈가 무슨 말을 했기에 파리 지식인 사회에서 가혹하게 '왕따'를 당했는지, 왜 카뮈의 『반항인』이 아롱의 『지식인의 아편』보다 4년이나 앞서 나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는지, 왜 '세계의 미국화'가 또 하나의 절대, 또 하나의 극단으로 전 세계에 강요되는 이때 그의 사상이 새삼스럽게 우리의 귀를 사로잡는지 하는 물음에 답하는 데 있다.

| 강사명 | 유기환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어학부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어과를 졸업했고, 프랑스 파리 제8대학교에서 '노동소설의 미학' 연구로 불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19세기/20세기 프랑스문학이다.

저서로는 『조르주 바타이유』(2006), 『알베르 카뮈』(2004), 『프랑스 지식인들과 한국전쟁』(공저 2004), 『노동소설, 혁명의 요람인가 예술의 무덤인가』(2003) 등 5권이 있고, 역서로는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2014), 알지르다스 쥘리엥 그레마스/자크 퐁타뉴의 『정념의 기호학』(공역 2014), 에밀 졸라의 『목로주점』(2011)과 『나는 고발한다』(2005), 외젠 다비의 『북 호텔』(2009), 조르주 바타이유의 『에로스의 눈물』(2002), 롤랑 바르트의 『문학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1998) 등 10권이 있다.

논문으로는 「'책을 읽는 하층민' 쥘리엥 소렐의 독서 연구 - 『적과 흑』」(2018) 등 30여 편이 있다.

2강 주제1 | 전통과 사유

| 강좌명 | 박지원과 나누는 대화: 대립과 갈등의 해법

우리 시대는 심각한 갈등을 앓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의 가치가 대립하고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패러다임이 충돌하고, 언론의 자유와 언론 통제의 주장이 부딪치고, 전통적인 성적 차이론과 페미니즘론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선악 대립의 관점에서 상대의 소멸을 지향하는 좌파의 도전, 그에 따른 우파의 응전이 자리 잡고 있다.

박지원을 주목하는 이유는 대립을 의존과 공존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때문이다. 노론과 소론의 정치적 갈등이 심했던 18세기, 그는 노론과 소론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일한 가치를 분담하여 공존해 온 관계라고 해석했다.

그의 대립론은 대립을 동도론(同道論), 곧 명분과 가치를 분담하여 실현한 상태라고 해석한다. 대립 주체들은 그들이 각자 추구한 가치의 총합이 개별 주체가 성취해야 할 가치이지만, 한 개별 주체가 모든 것을 다 성취할 수 없으므로 각 주체마다 일부분만 추구하고 나머지는 다른 주체에게 맡긴 상황이라는 뜻이다. 대립의 본질을 의존과 공존으로 해석한 논리다.

| 강사명 | 이현식 (전 서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림대학교 부설 태동고전연구소 한학연수과정(지곡서당)과 일본 동경외국어대학 조선어언문학계 연구생 과정을 수료했다. 중국 북경 중앙민족대학 조선어언문학계 초빙교수, 서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를 지냈다.

연암 박지원 작품의 논리와 미학적 특징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행길을 답사하며 『열하일기』에 대해 연구한다. 저서인 『박지원 산문의 논리와 미학』(2012) 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

3강 | 주제1 | 전통과 사유

| 강좌명 | 퍼스의 가추법과 은유 그리고 창조성

본 강의는 미국의 철학자이자 논리학자인 찰스 샌더스 퍼스(1839년~1914년)의 지성적 전기를 통해 그의 학문과 시대적 맥락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의 가추법을 21세기 맥락에서 창조성 개념과 연관하여 생각해 본다. 구체적으로 도상성을 통한 창의적 가추법을 이해하고, 예술과 과학에서 가추적 추리의 다른 점과 유사점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창조적 진화로서의 예술적 창조성을 퍼스의 도상 기호 곧 이미지, 다이어그램, 은유와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고, 창조적 사고가 어떻게 예술작품을 통해 표현되는지, 창조성의 개념을 창조물로서의 실용적 효과와 연관하여 생각해 본다.

| 강사명 | 이윤희 (한국외국어대학교 HK 세미오시스 연구센터 HK교수)

고려대학교에서 "활동 기호학의 이론적 토대: 상징적 중재와 대화적 상호작용"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의 인디애나대학교-퍼듀대학교(IUPUI)의 <퍼스전집편집위원회 The Peirce Edition Project>에서 초빙연구원으로 퍼스 연구를 수행했다. 퍼스 기호학의 관점에서 상징, 대화적 자아, 내러티브 인지와 모델링, 영화와 다이어그램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역서는 '퍼스기호학 독해시리즈'로 『퍼스기호학의 이해』(2013/2019개정), 『퍼스 철학의 이해』(2016/2019개정), 『의미의 이해: 찰스 퍼스와 구조주의, 그리고 문학』(2016)이 있다. 저서로는 『내러티브와 세미오시스』(2019)와 『찰스 샌더스 퍼스』(2017)가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퍼스의 다이어그램과 알레고리적 독서: 김연수의 작품을 중심으로」(2018), 「A semiotics of creativity and a poetic metaphor: Towards a dialogical relation of expression and explanation」(2016), 「The rhetoric of love and self-narratives in the cinema image: A Peircean approach」(2016) 등이 있다.

4강 | 주제1 | 전통과 사유

| 강좌명 | | 토크쇼 | 니클라스 루만에게 길을 묻다

독일의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1927년~1998년)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는 21세기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할까? 루만의 체계이론은 하나의 사회가 어떻게 발생하고 유지, 변동, 진화 그리고 분화하는지를 해명하는 방대한 이론이다. 그의 이론에서 사회라는 하나의 체계는 커뮤니케이션을 구성단위로 하며, 각각의 커뮤니케이션은 날로 분화하고 있는 다양한 매체들을 사용하면서 특정한 의미들을 생산하고,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분화한다. 그러므로 다문화, 다원화, 다매체, 다층성을 특징으로 하는 우리 사회를 커뮤니케이션의 분화라는 관점에서 이해해 볼만한 근거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곧바로 다음과 같은 의문이 떠오른다. 도대체 루만의 사회이론에서 인간의 자리는 어디일까? 인간이 사회의 중심이 될 수 없을뿐더러 구성요소조차도 못된단 말인가? 최소한 사회의 구성단위인 커뮤니케이션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번 강좌에서는 마치 인간을 배재하고 기능을 앞세우는 듯한 루만의 사회이론에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고 그의 사회이론이 우리의 현실 사회, 또는 사회 문제들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 강사명 | 김형래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 교수)
서송석 (서울여자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김형래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독문학 졸업하고 독일 보쿰 대학교에서 논문 「영화와 컴퓨터: 피상성의 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택시운전사』(공저 2018), 『세미오시스의 매체성과 물질성』(공저 2017) 등이 있고, 역서로는 『파스빈더와 들뢰즈』(2016), 『영화와 텔레비전 분석 교과서』 (공역 2015) 등이 있다.

영화 <디-워>, <아바타>에 대한 논문과 미하엘 하네케, 빔 벤더스, 파스빈더에 관한 논문 및 들뢰즈의 영화 이론에 관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서송석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를 졸업하고 독일 뒤셀도르프 대학교에서 니클라스 루만의 체계이론을 통한 괴테의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분석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논문으로는 「괴테의 『친화력』에 나타난 매체로서의 사랑」(2019), 「예술 및 문학사회학의 지평 확대를 위한 새로운 모색」(2018) 등이 있다.

저서로는 『신과 함께』(공저 2019), 『택시운전사』(공저 2018), 『밀정』(공저 2017)이 있고, 역서로는 『택시운전사』(공역 2018), 『괴테: 예술작품 같은 삶』(공역 2017) 등이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괴테, 18세기 독문학, 문학이론, 문화담론, 체계이론, 매체와 커뮤니케이션 이론, 문학사회학, 예술사회학이다.

5강 주제1 | 전통과 사유

| 강좌명 | 침묵과 즉흥성의 미학

60년대 미국의 음악평론가 피터 예이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존 케이지는 오늘날 생존해 있는 작곡가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다." 존 케이지 (John Cage)는 20세기 후반을 장식하는 가장 독창적인 작곡가이자, 전후 아방가르드 운동에 초석이 된 예술가이다. 20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아방가르드 음악가로써 그의 영향력은 음악을 넘어 실지로 예술 전 분야에 미치고 있다. 40년대 초반 그의 영향력은 확실히 음악계보다는 미술계에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30년대 말 그의 '파괴적' 실험음악-펄포먼스가 행해졌을 때 당황한 음악계를 제치고 그에게 가장 앞서서 러브콜을 보낸 것은 미국의 구겐하임미술관이다). 그러나 그의 지치지 않는 행보는 각 분야 간의 경계를 넘어서 예술적 영감을 제공하게 되었다. 그간 그에 관한 수많은 연구 논문, 연구 서적들이 발표되었고, 많은 강연회 및 음악회들이 기획되었다. 한편, 그는 극동의 사유를 수용하여 예술에 반영하였으며, 그것이 서구 출신의 작가에 의한 극동사상의 본격적인 수용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 새로운 음악의 전초적 방위를 개척해 나아갔다는 점에서, 현대 예술사의 가장 독특한 입지를 점유하고 있다. 실제로 케이지는 인도미학 라사, (선)불교, 역경 등을 탐구하였으며, 초기 인도사상에 대한 관심은 불교사상을 발견하면서 극동 사상에로 이행된다. 그리고 <침묵(4'33")>은 이러한 발견과 이행의 구체적인 산물로 칭해진다. 본 강의는 케이지의 침묵의 탄생과 그 의미를 살펴본다.

| 강사명 | 김예경 (홍익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해미 클레멘세비츠(사운드아트 작가)

김예경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에서 미학/예술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대미술이론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현재 예술과 기술·과학의 문제, 포스트모던 시대 매체 환경의 문제에 등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마르셀 뒤샹의 <큰 유리>와 그로테스크한 기계 몸에 대한 소론_1 - 뒤샹, 자리, 파브로프스키를 중심으로」(2019), 「뒤샹과 사차원에 대한 고찰-2 - 뒤샹의 <큰 유리>와 파브로프스키의 사차원 세계로의 여행 을 중심으로」(2018), 「뒤샹과 사차원에 대한 고찰_1」(2017), 「죤케이지의 우연에 대한 소고」(2016), 「뒤샹의 무위」(2016), 「보는 것과 만지는 것」(2015), 「신매체 예술, 경계를 넘어서」(2011) 등이 있다.

해미 클레멘세비츠(Rémi Klemensiewicz)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태어나 예술을 전공했다. 2014년부터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사운트아트 작가로 그의 작업은 설치에서 라이브 퍼포먼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을 취하며, 실험의 중심 재료로서 '소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단순하고 아날로그적인 재료와 과정을 통해, 시각과 청각 사이의 상관관계와 상호의존성에 관한 개념에 대해 질문하는 작업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시각과 청각을 연결하는 도구로서 언어나 음악 기호 등의 시스템이 종종 사용된다.

6강 주제2 | 위상학적 상상력

| 강좌명 | 가추법과 일상 대화

흔히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In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이라 소개되는 퍼스의 가추법(abduction; 철학계에서는 '귀추법'이 주로 사용됨)은 퍼스의 논리학적 주요 업적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일상적 언어 사용 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추론이 가추법이라는 관점에서 실제 자료를 함께 분석해 보는데 주안점을 둔다. 강의 진행은 우선 가추법에 대한 쉬운 소개로 시작한 뒤 가추법의 정의에 대한 논란을 일부 살펴보면서 가추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일견 직관에 잘 부합되는 가추법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가추법의 엄밀한 정의 및 논리학적 차원의 지위나 특성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그와 관련한 철학계 쪽의 논문 두 어개를 참고하여 쟁점이 무엇이고 그러한 쟁점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지를 살펴본다. 강의의 주 내용은 일상적인 언어활동에 작동한다고 간주되는 가추법적 추론의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화용론(Pragmatics)에서의 핵심 현상인 그라이스(Grice)의 함축생성 기제로서의 추론으로 가추법이 활용된다는 주장에 입각하여 다양한 상황에서의 실제 언어 사용 예를 분석해 보이기로 한다.

| 강사명 | 최재웅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명예교수)

현재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소속 명예교수로, 1987년에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 대학교 (앰허스트)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1991년~2019년에 고려대학교 언어학과에서 연구와 강의를 담당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이론언어학으로 의미-화용론에 특히 관심이 많으며 대체로 형식문법적인 입장을 취하는 편이다. 비교적 최근에는 언어의 전산적 구현과 언어자원 활용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 Fulbright Fellow로 선정되어 MIT에서, 일본 JSPS의 초청학자로 선정되어 Waseda대학교에서, 기타 여러 나라 대학교에서 방문학자로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다.

7강 | 주제2 | 위상학적 상상력

| 강좌명 | **도시공간의 지문(地文)읽기 : 목포시 근대역사공간 '남촌'의 기억과 서사를 중심으로**

이 강의는 도시공간을 인식론적 차원에서, 다시 말해 물리적 실체로서의 거주 공간이 아닌 인식의 대상으로서 의미화된 공간을 다루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 강의의 목표는 기호학 기반의 간학문적 접근을 통하여 한편으로는 도시 공간의 역사적 의미 구축과정(장소의 서사성)을, 다른 한편으로는 소통적 의미생산의 구성과정(공간의 텍스트화)를 천착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강의에서 수행될 도시 분석은 도시 공간에 대한 상식적이며 일반적인 내용 제시가 아닌, 기호학, 텍스트학, 서사학 등의 인문학적 방법론에 의해 분석된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가 발생하는 주요 채널에 대한 간학문적 분석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공간의 서사와 의미생성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전략적 모색으로서 반드시 요구된다. 이 같은 작업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고있는 현재의 도시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문화 의식에 바탕을 두는 것으로서, 새로운 도시 문화의 상상계를 구성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강사명 | 오장근 (목포대학교 독일언어문화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뮌스터 대학교에서 언어학(광고텍스트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과 응용문화연구소의 연구교수를 역임했으며, 성산효대학원대학교 효문화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국립목포대학교 독일언어문화학과에 재직 중이다.

현재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회장, 한국기호학회 회장 등 다수의 학회에서 임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문화기호학과 텍스트학을 기반으로 한 문화연구와 광고 분석에서 학문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저서로는 『도시인식론』(2018),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공저 2010), 『축제와 문화콘텐츠』(공저 2006), 『기호, 텍스트 그리고 삶』(공저 2006), 『문화콘텐츠학의 탄생』(공저 2005), 『텍스트언어학의 이해』(공저 2004), 『광고 텍스트 읽기의 즐거움』(공저 2004) 등 다수가 있다.

최근 도시공간의 서사와 이미지에 관련한 다수의 인문학적 연구 성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 있다.

8강 | 주제2 | 위상학적 상상력

| 강좌명 | 칼리닌그라드의 정치지리학

정치지리학(Political Geography)은 정치주체들의 인식과 행위에 대한 공간의 영향력 또는 공간의 영향력 하에서 정치주체들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분야(discipline) 또는 접근법(research approach)을 의미한다. 과거 쾨니히스베르크(Königsberg)로 불렸던 러시아의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는 가장 늦게 러시아 영토에 편입되었지만, 7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도시이다.

또한, 오늘날 칼리닌그라드는 소련 해체로 인해 한 국가의 영토지만 육지를 통해 이어져 있지 않은 고립영토로 남아있다. 강의에서는 정치지리학적 관점에서 칼리닌그라드의 역사와 지리적 특성에 기반을 두고 경제 성장의 한계, 전략적 가치, 지명 변경에 관한 논쟁, 정체성 문제 등을 살펴본다.

| 강사명 |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교수)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철학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러시아·유라시아팀장,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연구 분야는 지정학, 러시아 대외정책, 한·러 경제협력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다국적기업론』(2019), 『주변국 국경안보: 사례와 검증』(2017), 『중·몽·러 경제회랑의 발전 잠재력과 한국의 연계방안』(2016),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정책과 한·러 협력방안』(2015), 『러시아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2014), 『러시아의 북극개발 전략과 한·러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2013), 『남북러 가스관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지정학』(2013) 등이 있다.

9강 | 주제2 | 위상학적 상상력

| 강좌명 | 종교와 은유: '불가언설(不可言說)'의 언설

이 강의에서는 전통적으로 수사(修辭)의 수단으로만 여겨 왔던 은유를 인간 정신의 필요 불가결한 요소로 재조명하고 그 극적인 사례를 종교의 언어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오늘날 인지과학에서 강조하듯이, 은유는 단순히 시적인, 생생한 표현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고, 지식을 구축하고, 감정을 소통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은유의 이러한 인지적 기능은 인간이 언어를 갖게 됨으로써 구축할 수 있게 된 (가상의) '정신공간'을 통하여 현상과 실재를 해석, 사유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과도 연결된다. 이러한 은유의 역할은 가시적인 감각적 현상을 넘어 초월적, 궁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종교에서 그 빛을 발한다. 초월적인 것은 흔히 '불가언설(不可言說)'로 요약된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기 위해 초월적 종교는 전통적으로 다양한 비유를 동원해 왔다. 하지만 이 강의는 명시적이고 의도적인 비유의 차원을 넘어서 암묵적이고 무의식적인 은유의 편재성을 확인하고 '불가언설의 언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특정 종교 바깥의 '외부자적' 시점에서 접근해 보려는 시도이다.

| 강사명 | 강병창 (한국외국어대학교 HK 세미오시스 연구센터 HK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를 졸업하고, 독일 뷔르츠부르크 대학교에서 수학했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독어학/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논문으로는 「Metaphor and Its Humorousness: The Case of Nominal Compounds in German」(2016), 「Unifying Opposites through Metaphor: A Cognitive Approach to the Buddhist Metaphors for the Mind in the Awakening of Faith Discourse」(2018), 「언어폭력과 비유」(2019) 등이 있다.

저서로는 『디지털 문화와 놀이: 미디어 세미오시스 분석』(공저 2019), 『말과 그림 사이: 융합의 매체상호성』(공저 2018), 『세미오시스의 매체성과 물질성』(공저 2017), 『언어와 유머』(2016), 『인지와 감정의 내러톨로지』(공저 2015), 『내러티브와 매체』(공저 2014) 등이 있다. 역서로는 『번역이론 입문: 번역학 꿰뚫기』(공역 2011), 『거짓말의 언어학』(공역 2010) 등이 있다.

10강 | 주제2 | 위상학적 상상력

| 강좌명 | 당신이 만들어 가는 놀이: 게임과 신화

어린 시절 '땅따먹기'나 '구슬치기' 같은 놀이를 하며 즐거워하던 기억이 있다. 그렇게 놀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며 행복해하던 경험은 나이가 들어 노동을 하며 주어지는 '과제'(?)를 완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금씩 잊혀져간다. '자발적 몰입'과 '능동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놀이'에서 강제적 '노동'으로 변환되는 삶의 과정은 그래서 우리를 슬프게 만든다. 경쟁과 효율성을 요구하는 '노동'을 재미를 추구하는 '놀이'로 바꾸어보면 조금 행복해질까? '게이미피케이션 gamification'을 중심으로 확장된 놀이 개념을 살펴보고, 공간축을 중심으로 플레이어의 경험을 중시하는 게임 요소의 특성을 신화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 강사명 | 김요한 (영남대학교 유럽어문학부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하이퍼텍스트 문학 연구 - 하이퍼텍스트의 구조적 특성과 새로운 문학의 가능성"이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영남대학교 유럽언어문화학부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궁니르와 묠니르 - 기호로 읽는 북유럽 신화」(2019), 「원형과 전형, 그리고 변용」(2019), 「소설 보기, 영화 읽기」(2017), 「괴물열전」(2016), 「아리아드네의 실」(2015) 등이 있더,

저서로는 『디지털 시대의 문학하기』(2007), 『매체와 장르』(공저 2017), 『내러티브와 매체』(공저 2014) 등이 있다.

11강 | 주제3 | 기호, 우주, 소통

| 강좌명 |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퍼스 기호학을 중심으로- 가능성과 한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든 것이 인터페이스로 연결되어 있다.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우주, 기계, 그리고 인간을 포함하는 거시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Homo Communicus)'라고 볼 수 있다. 이 강연에서는 언급한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을 퍼스의 기호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인간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그 가능성과 한계점을 살펴보게 된다.

강연 주제

-퍼스 기호학의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은 무엇인가?
-퍼스의 기호학적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적 패러다임
-퍼스 기호학의 소통적 콘셉트
-퍼스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적 쟁점
-퍼스의 기호학적 커뮤니케이션의 한계

| 강사명 | 조창연 (서원인문사회미학연구소 대표, 전 서원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자유베를린대학교(FU)에서 "기호 의미생성에 대한 인지기호학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한 광고커뮤니케이션의 제품의미 생성에 대한 분석"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인간커뮤니케이션 현상을 기호학, 인지과학, 그리고 뇌과학을 기반으로 연구하고 이를 이론과 실제로 연결하는 통섭적인 작업에 관심을 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재현 패러다임의 전환과 기호학적 고찰」(2018), 「퍼스의 기호학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 이론적 현황, 문제점과 대안적 모델」(2015), 「소셜미디어의 매체 기호학적 함의- 퍼스 기호학을 중심으로」(2014) 등이 있다. 저서로 『휴먼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이론』(2017), 『광고기호학의 핵심 이론』(2016), 『기호학과 미학』(공저 2016), 『뉴로 커뮤니케이션』(2015), 『기호학과 뇌인지과학의 커뮤니케이션』(2014) 등이 있고, 역서로는 『아이브레인: 디지털 테크놀로지 시대에 진화하는 현대인의 뇌』(2010), 『영화 인지 기호학: 영화이해의 인지기호학적 전환을 위하여』(2007) 등이 있다.

12강 | 주제3 | 기호, 우주, 소통

| 강좌명 | 우주 수사학 (Rhetoric of Cosmos)

'1977년 8월 20일과 9월 5일 '보이저 Voyager' 우주 탐사선이 우주로 발사되었다. 이들은 1979년부터 1986년까지 목성에서 천왕성에 이르는 행성계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했고 지금은 태양계 밖으로 계속 여행을 이어가고 있다. 두 보이저호에는 금박을 씌운 축음기용 구리 레코드판이 하나씩 부착되어 있는데 그것은 머나먼 미래의 어느 시간과 공간에서 만날지도 모르는 외계 문명에게 보내는 지구인의 메시지이다. 각 레코드판에는 우리 행성과 인간의 문명을 담은 사진 118장, 90분가량의 세계 최고의 음악들, 지구와 그 생명 진화의 목소리 '지구의 소리들 The Sounds of Earth', 당시 미국 대통령과 유엔 사무총장의 인사말을 비롯하여 약 60 개 국어의 인사말(고래 인사말 포함)이 담겨있다. "모든 세상과 모든 시대의 음악가들에게"는 『지구의 속삭임 *Murmurs of Earth*』의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헌사이다.

그렇다면 왜 보이저호에 지구의 속삭임을 담은 레코드를 우주를 향하여 보낸 것일까? 20세기 노벨상 수상 미국의 이탈리아계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 Enrico Fermi는 1950년대 매우 중요하고 시사적인 질문을 던졌다. "다들 어디에 있는 것일까? Where is everybody?" 우주는 생긴 지 오래되고 엄청난 크기를 지니고 있다. 우리 은하계에만 거의 5천억 개의 항성이 있고 대부분 둘레에 태양계 즉 행성들을 갖고 있다. 즉 지적생명체가 지구 아닌 곳에 존재할 가능성이 극도로 높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모두 어디에 있을까? 이 질문은 지구인들의 호기심과 지적 탐구심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인간은 지구를 넘어 우주를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광활한 우주에서 지구와 같은 행성 그리고 지구 이외의 지적생명체를 탐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우주 개척과 소통의 레토릭이 보이저 호 골든 레코드 발송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이루어 내었다. 바야흐로 우주 생명체 탐사는 우주생물학 시대의 도래를 시사한다. 본고는 이러한 외계지적생명체탐사를 목적으로 발사한 보이저호의 골든 레코드에 실린 메시지를 레토리컬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 강사명 | 나민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제7대학교 대학원 중국언어문화과정 석사를 받은 후,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 EHESS에서 언어학(중국어) 박사학위를 받았다. 수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로 재임(1997년~2012년)하였으며, 2012년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세계중국어수사학회 회장이자 ISHR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History of Rhetoric Council member, 서울공자아카데미 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수사학회/한국중어중문학회/한국중국언어학회의 부회장 겸 <수사학>편집위원장으로 있으며, 과학책방 갈다 주주이자 SETI(Search for Extra Terrestrial Intelligence 외계지적생명체탐사) Korea 이사를 역임중이다.

현재까지 중국 전통수사학과 서양 레토릭, 중국어 사회언어학 관련 강의와 연구를 해왔고 점차 그 영역을 우주과학과의 접목으로 확장하고 있다.

13강 주제3 | 기호, 우주, 소통

| 강좌명 | 생명은 어떻게 사고하는가?: 생명-기호의 생태학적 소통에 대하여

'배가 난파되었다. 배 안에는 한 사람과 개 한 마리가 있다. 이 중 하나만 구조할 수 있다면 누구(무엇)를 선택할 것인가?' 대개는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늙고 병들었으며, 개는 팔팔한 강아지다.'라고 하면 어떨까? 내가 이 문제를 수업 시간에 던졌을 때 학생들의 반수 이상은 개를 선택하거나, 사람을 선택하더라도 바로 답을 하지 못하고 잠시 머뭇거렸다. 가상의 상황을 주고 선택을 하게 하는 이러한 문제는 정답을 구하기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를 묻는다. 적어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람과 개의 생명에 대한 가치는 과거만큼 비대칭적이지 않다.

"반려인구 천만 시대"가 말해주듯 현재 대한민국은 두 집 건너 한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키운다. 심지어 다양한 부류의 비인간 동물들도 '반려'라는 이름으로 인간과 살고 있다. 동물과 가족을 이룬다는 "펫팸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다. 개나 고양이와 오랫동안 같이 살아본 사람이라면 개나 고양이도 인간만의 의사소통 매체인 '언어'를 쓰지 않는다 뿐이지 의사를 표현하고 인간과 소통하며 '생각'을 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낀다. 나아가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반려동물'에게서 마음을 치유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들은 동물이 사람보다 낫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제까지 근대 세계에서 사고는 인간의 전유물이고 비인간 동물은 사고의 대상이었다.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은 오직 인간 및 인간집단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 관점에서 비인간 동물은 사고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인간 동물까지도 논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때 비인간 동물은 인간의 특권적이고 독점적인 지위를 부각시키는 참조점이 아니라 인간과 공생해야 하는 또 하나의 사고하는 존재로서 인간과의 동질성이 강조된다. 인간과 비인간을 아우르는 사고의 너른 영역을 기호학의 관점에서 탐색해보자.

| 강사명 | 차은정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서강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 큐슈대학교 한국연구센터 방문연구원, 히토츠바시대학교 사회연구과 객원연구원을 역임했고, 21세기 인류학의 이론적 흐름인 '존재론적 전회'(ontological turn)에 관심을 가지고 동아시아의 기억과 실천에 대한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모색하고 있다.

14강 주제3 | 기호, 우주, 소통

| 강좌명 | 가스통 바슐라르의 4원소 상상력 이론에 기초한 컴퓨터 비전 처리

인간의 상상력에 관한 철학적 이론의 발정에 기여한 학자로는 구스타프 융, 장 폴 사르트르, 가스통 바슐라르, 및 질벨르 뒤랑이 가장 대표적 인물들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독일어와 프랑스어권의 철학의 교류에 영향을 받았다. 상상력의 이론가들은 현상학을 창시한 독일의 철학자 에드문트 후설과 지드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영향을 받아 20세기 상상력 이론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들의 상상력 이론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이 이미지를 어떻게 인식하는 지에 대한 문제에서 출발하였다. 본 세미오시스 강의에서는 프랑스의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의 4원소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슐라르의 상상력이론을 컴퓨터에 학습시켜 이미지와 연관된 상상력을 인지하는 방법에 대하여 강의한다. 바슐라르는 물질적 상상력이라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상상력은 이미지를 인식하면서 4원소 (물, 불, 공기, 대지)의 질감과 연계되어 발생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바슐라르의 4원소에 기초하여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4원소 질감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인공지능과 인문학적 인식론의 융합적 연구방법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진다.

| 강사명 | 한영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 통번역학과 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국제지역대학원 유럽연합학과에서 유럽지역학 석사를 받았다. 영국 랭캐스터 대학과 독일 지겐대학에서 유럽 및 글로벌학 전공으로 사회학 박사를 받았다. 현재 연구 분야는 인공지능 인문학, 미디어, 및 공간사회학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Jungian Character Network in Growing Other Character Archetypes in Films」(2019), 「Enhancing the power of color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in visual narration」(2018), 「Genealogy of German Intellectual Impacts on Making of Economic Planning in South Korea」(2018) 등이 있다.

저서로는 『보수문화의 이론적 토대』(2018)가 있다. 학술활동으로는 중앙대 인공지능 인문학 HK+국제학술대회 4회 발표, 중앙대-한국외대 접경인문학 HK+ 국제학술대회 1회 발표, 및 건국대 모빌리티 인문학 HK+ 국제학술대회 1회 발표가 있다.